

지역 소식통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발대식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봉철)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이 지난 8일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이날 발대식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 어르신 선언문 낭독과 땀다방 피해예방 홍보, 소방 및 교통안전교육,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부안군지회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경로당 관리원, 무료경로급식도우미, 체육건강강사 파견, 나눔이 있는 채움 밥상, 산기경로당 함께 하는 영농사업 등 6개 분야이며...

김봉철 부안 군지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자와 수혜자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는 뜻있는 사업"이라며...

김제시 성덕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양·안전교육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에서는 9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지도를 위해 지도 반장을 위촉하였고 참여자가 노인인으로서 공익노동자 등 공공시설봉사 사업임을 감안하여 안전 및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2월 3일부터 11일까지 홍보 및 참여자 모집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신청 받았으며 총 19명 신청자 중 4명은 타 수행기관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연계하였으며 공익·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및 빨래방 사업에 참여할 1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직접 일자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건강을 지키고 사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깨끗한 성덕면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실 것과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한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5명은 앞으로 11월까지 9개월 동안 성덕면 일원에서 환경정비와 실버빨래방 사업에 투입되어 주3회 월 30시간을 일하게 된다.

정읍시, 조림사업 14억원 투입

편백·백합·단풍 나무 등 경관림 조성·산림 재해 방지

정읍시가 올해 조림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정읍시는 "산림이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170ha의 산림과 공한지에 대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봄을 맞아 11억원을 투입해 모두 20만2천본의 나무 심기에 나선다. 시는 60ha의 경제림 조성에 나서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상수리나무를

심는다. 또 35ha에 이팝나무와 산수유, 단풍 나무 등을 심어 경관림을 조성함으로써 산림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제일 단풍 고장으로서의 기반 구축사업으로 40ha의 단풍 나무 특화림 조성 일환으로 내장전변 자전거도어에 단풍나무 큰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림사업에도 3억원을 투입해 35ha에 17만8천여본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림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안정적인 목재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산림 소득 증대를 꾀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사업을 통해 미래 정읍의 산림 자산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나무 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시의회, 고택 문화체험관 운영 간담회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안 모색·릴레이 토론 등 벌여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안길만 위원장, 이만재, 김재오, 최낙삼, 이복형, 황혜숙)의원 6명은 지난 8일 저녁에 고택문화체험관에서 주민 7명, 전문가 1명, 근무자 2명을 비롯해 농생명정리사업담당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6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고택 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고택문화체험관 한옥숙박 체험과 주민들과 진솔한 터놓고 대화를 통해 직영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먼저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최영기교수의 운영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참석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4시간에 걸친 릴레이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최영기 교수는 고택문화 체험관의 관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경제적 보다는 마을 주민이 누리는 혜택이 크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고택 숙박체험이 추가 되고, 2차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고택문화체험관을 직영할 시에는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업무연속성이 떨어질 것이고 위탁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참석 의원들은 숙박업체가 전문적인 운영을 맡아주고 주민들이 숙박과 식사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주민들이 선진시례를 참고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에 대한 절충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숙박업체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당분간은 숙박체험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택문화체험관을 앞으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마을주민이 적극 참여 할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의회도 적극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은 산외면 공동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21억(국비150%,시비50%)을 투자하여 지난 2015년에 개원하였고 전통한옥 3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제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실무협의회

김제시는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9일 오후 2시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에서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학부모단체 등 실무협의회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품목 및 단가를

결정하고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품목 확대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실무협의회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이번 협의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식재료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되어 학교급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구입 품목은 감자와 고구마, 무, 양배추, 양파, 오이, 대파 등이다.

김제시는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호응'

정읍시보건소, 사업장별로 주 1회씩 방문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직장 때문에 보건소를 찾기 힘든 직장인이나 단체 등을 위해 사업장별로 주 1회씩 방문, 총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읍시 내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단체 등 금연 희망자가 10인 이상인 곳이면 어디나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는 지난달 하순경부터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한 (주)세움과, (주)하립 정읍공

장, 한서요양병원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교육과 금연 상담은 물론 건강 관련 상담, 협합과 체성분 등을 측정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또 금연 보조제 지급 등의 금연과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인들의 흡연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감소시키고 업무시간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동 금연클리닉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관공서, 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539-6082)로 연락하면 방문일정과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제시, 시정연구원 정책자문회의 개최

김제시는 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정연구원과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제시 시정연구원은 시의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자문을 위해 행정지원, 안전개발, 문화관광, 첨단농업 등 4개 분과에 33명의 각계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벽골제 일원 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서부권 스포츠관광 안전코플렉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안전개발·문화관광 분과 시정연구원의 자문과 지평선 축제 연계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김제시는 벽골제 주변 기본계획이

미수립 되어 그간 각종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 경위, 부서별 의견에 대한 조율내용을 보고하고 타당성 분석, 관광 휴양 거점단지 확충을 위한 시정연구원들의 자문을 통해 일관되고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은 "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시정연구원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관광 활성화에 공동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국·소별로 과제를 발굴하여 시정연구원을 통한 정책연구 및 자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arge promotional graphic for 'Chunhyangje' festival. It features a circular collage of images: a traditional Korean festival scene with a drum, a group of women in colorful Hanbok, a scenic view of a mountain with cherry blossoms, and a path through a forest. Text includes '남원시' (Namwon City), '춘향제 (5월)', '철쭉제 (4~5월)', '지리산둘레길 (3~5월)', '요천번 빛꽃 (4월)', and '요천자전거길 (5월)'. A central slogan reads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 (Meeting the world through travel). Logos for '순향남원' and '남원시' are also present.